



박 노 송 과

함 께 하 는 합 격 의 길

박노송의

神의 한 수

출제자 분석 최종적중자료

전 영역

1. 출제 분석표 및 연간 수업 과정 연계 자료
2. 출제 적중 비교 자료
3. 수업 내용과 비교 자료첩 (부록)



2교시	영역	출제 근거	수업 관련도	유사정도
1	화법	발표 (개요, 원고, 의미공유, 대화, 상호교섭 등)	1-2월 과정	응용
2	문학	최명익의 공간성과 시간성 (특급, 열차, 조난자 등)	5-6월 과정	응용
3	문학	가면극의 성격과 기능	1-2월 과정 7-8월 과정	유사
4	문법	용언의 관형사형 시제표지	3-4월 과정 9-11월 과정	유사
5	문학	인물의 성격소 (수업 중 이상하게 가르친다고 비판받았던 부분)	5-6월 과정 9-11월 과정	유사
6	독서	□ 독서의 기능과 전략 ① 글의 구조 파악 및 핵심 내용 파악/ 도해조직전략(교과서 구성) - 이상 사실적 독해 ② 비판적 평가 준거-비판적 독해	3-6월 과정 7-8월 과정 9-11월 과정 교과서 분석반 적중	적중
7	작문	□ 독자 인식(수준)과 수업 모형 ① 독자 요소 - 정의적 요소 / 인지적 요소 (전략, 장르지식) (요구, 흥미, 효능감, 태도 등) ② 현시적 교수 모형	9-11월 과정 출제자 분석 파일별 적기 특강 적중(논문기반)	적중
8	문법	용언의 활용형의 소급형(형태사) ㅂ:ㅅ의 대립(기저형)	3-4월 과정 7-8월 과정 9-11월 과정	적중
9	문학	강호가도와 상호텍스트 맥락	1-2월 과정 7-8월 과정 9-11월 과정 교과서 분석반	적중
10	문법	올바른 국어생활	9-11월 과정 출제자 분석 파일별 적기 특강 적중(논문기반)	적중
11	문법	최소대립쌍	1-2월 과정 9-11월 과정	유사
12	문학	심상과 시어의 의미 관계 (수업 중 이상하게 가르친다고 비판받았던 부분)	9-11월 과정 출제자 분석 파일별 적기 특강 예측(논문기반)	유사

3교시	영역	출제 근거	수업 관련도	유사정도
1	작문	작문이론과 작문인지모형(F&H 1981 / Hayes 1996) 작문의 맥락	3-4월 과정 9-11월 과정 파일별 적기 특강	적중
2	문학	시점과 초점화	5-6월 과정 7-8월 과정 9-11월 과정 파일별 적기 특강	적중
3	화법	내용연결표현과 설득표현전략	1-2월 과정 9-11월 과정 파일별 적기 특강	적중
4	독서	자기 선택적 독서(읽기목적, 흥미 등, 독자수준, 장르지식) 독자중심(주도적) 독서(독서일지, 독서클럽, 창의적, 감상적 독해 활동)	5-6월 과정 7-8월 과정 9-11월 과정 파일별 적기 특강	적중
5	문학	노재가사와 사회문화적 맥락	1-2월 과정 7-8월 과정	유사
6	문학	시의 개성적 발전과 표현(명령형 어미, 행간결침 등) 문학의 태도(자아성찰) (수업 중 이상하게 가르친다고 비판받았던 부분)	3-4월 과정 7-8월 과정 9-11월 과정 교과서 분석반	유사
7	문법	문장성분강의 서술어의 성격 (수업 중 이상하게 가르친다고 비판받았던 부분)	3-4월 과정 5-6월 과정 9-11월 과정	적중
8	문법	형태사(체언의 형태 변화와 품사의 전성) 둘레>둘레(용언>체언)	3-4월 과정 9-11월 과정	응용
9	문학	고전산문 서사적 기능 분석	9-11월 과정 파일별 적기 특강	유사
10	문학	전기소설사(삼입시 구조, 전기성, 인귀교환, 혼사장애) 운명전의 맥락(적강모티브)	1-2월 과정 9-11월 과정 파일별 적기 특강	적중
11	작문	평가와 피드백(통일성, 문단수준, 글전체 수준)	3-4월 과정 7-8월 과정 9-11월 과정 파일별 적기 특강	유사 응용 (종합)



* 수업 관련도에서 유사성 외에 거의 찍어서 강조한 부분은 '적중' 강조 표시 (유사 정도 '적중' > '유사' > '응용') - 관련 입증 자료는 추후 공개 예정

적중	-작성방법, 예시문까지 일치 -답안 작성 키워드(작성할 내용) 사전 확정
유사	-출제 근거 및 작성 방법 중 과반수 일치(언사기, 문법), -출제 예측 일치하나 작품만 달라짐(문학) -작품도 동일하나, 작성 방법의 요구가 종합적임(여러 강좌에서 강조한 내용을 종합해서 해결)
응용	-출제 근거를 수업생이 응용(자동성 처리)해야 처리됨

* 수업 관련도의 과정이 많을수록 강사가 강하게 반복적으로 강조한 출제 근거

* (논문기반)이라 명시된 부분은 출제자 분석 후 찍어드린 출제 요소임(일반 서적이거나 수능 교재로는 접근 불가능) - 강사의 역량

* 시험 직전 체크 리스트(3일전 게릴라 특강 자료 일부)

독서편	기능(skill)	훈련을 통해서 숙달된 능력으로 자동화 지향성을 지님.
1. 독서+작문 통합-융합 - 요약하기(학습 독서)와 요약문 작성(학습 글쓰기)	전략(strategy)	질차적 지식, 복합적인 사고과정으로 보다 긴 시간이 소요되는 사고의 조작, 의식적인 활동.
2. 독자	전략	관련 활동
① 인지적 영역 - 읽기 이해, 읽기 성취	생성하기 전략	브레인 스토밍, 그림 그리기, 조사 및 관찰, 인터뷰, 토의, 문답 놀이, 관련 텍스트 읽기, 직접 경험, 자유 연상, 회상하기, 상상하기 등
② 정의적 영역 - 흥미, 동기, 선호 → 진로 선택 (자기 주도적 독서)	조직하기 전략	다발 정리, 도식화하기, 개요 짜기 등
③ 행동적 요소 - 독서량, 독서 시간	초고 작문 전략	메모하기, 열린 작문, 구두 작문 등
3. 성찰적 독자 / 비판적 독자 - 반성적 사고	감각적 표현 전략	감각적 단어 사용, 대화 작문, 은유나 직유 사용, 개성적인 문체나 어휘 사용, 격언이나 속담 등의 관용어 사용하기 등
4. 복합 양식 텍스트(복합 양식성) - 문식성의 재개념화 - 기능적/비판적/매체	정교화 전략	독자가 되어 질문하기, 독자가 되어 심상 만들기, 문단 늘어 작문, 관련 항목 추가 하기 등
5. 쓰기 윤리 지도 - 사회적 구성주의 / 매체 언어 환경 변화	점검하기 전략	소리 내어 읽기, 질문하기, 체크리스트 활용하기, 협의하기, 돌려읽기 등
6. 독서 목적 인식 - 예비 교사	교정하기 전략	교정 부호 사용하기, 관련 자료 활용하기, 덧붙이기, 삭제하기, 조정하기, 대치하기 등
7. 주지/비판적 독서 / 지식을 얻는 즐거움 / 폭 넓은 읽기 선호 - 우수한 독자	평가하기 전략	주석 달기, 점수화하기, 자기 평가 보고서 작문 등
8. 독서 교육 중심 - 전략 > 읽기 효능감	활용하기 전략	게시하기, 삽화나 그림 넣어 작품화하기, 다른 장르로 바꾸어 작문, 극화하기, 문집이나 문예지에 기고하기 등
9. 수업 변인 - 교사/학습자/환경 과제 변인 - 읽기 과정 / 전략		
10. 학습 목표-학습내용-교수학습활동-수업모형(목표 중심/현시적 교수)-평가		
11. 읽기 과정/읽기 재제/읽기 전략		
12. 독서 능력 - 기초 문제(해독, 해석) / 독해		
13. 독서 전략 - 예측하기, 추론하기, 밑줄긋기, 메모하기(노트), 훑어보기, 질문하기 등		
14. 독서 기능 - 사실/추론/비판/창의//감상 - 정교화/상위인지		
15. 상위 구조 - 정보 텍스트 - 비교대조, 인과, 문제해결, 수집(나열) 등		
16. 사실-중심내용과악, 글구조과악		
추론-담화표지어, 배경지식 활용		
비판-관점, 상호텍스트, 비평문 쓰기		
창의-독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문제해결 창의		
17. 사실과 추론(텍스트와 독자)/비판과 창의(독자)		
18. 직접, 현시적, DRA, DRTA, GRP(과정중심, 전략중심) / 독서토론, 독서워크숍(사회적 의미구성)		
19. 초인지 평가(요약, 중요도평정,프로토콜), 과정평가(빈칸메우기, 관찰법, 오독 분석법)		
20. 주제통합적 읽기-비판적 통합적 체구성 - 상호텍스트 - 창의		
21. 자기선택적 독서-흥미, 동기, 읽기 목적, 글유형-독서일지-독서클럽-한학기 책한권읽기		
22. 학습 독서 - SQ3R/SRUN		
23. 답화 공동체, 사회문화화모형(문식성), 해석 공동체		
24. 날개 활동 - 질문(예측하기, 관련짓기, 비판하기, 반응하기, 질문하기 등)		
작문편		
1. 대화 / 실제성 / 실제 독자		
2. 주제기반/독자기반, 주제-저자/주제-독자/독자-저자(논문참고)		
3. 반응 중심 평가 / 동료 평가 / 동료반응피드백		
4. 실제성/예상독자/교쳐쓰기와 피드백		
5. 작문능력 구성 요인		

작문 기능 범주와 세부 항목(최현섭 외, 2005)

발달 수준	지도 내용
단순 연상적 작문 기능	필자가 자신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을 그대로 문자로 옮겨 놓는 작문기능이다. 이를 위해서는 문자 쓰기에 능숙해져서 문자 언어로 표현하는 데 막힘이 없어야 하고 글의 주제와 관련되는 내용을 생성해야 한다. 미숙한 필자들은 대개 이 수준에 머물러 있는데, 이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은 쓸 거리를 찾는 일이다. 따라서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쓸거리를 찾아내는 전략을 가르치는 일이다.
언어 수행적 작문 기능	단순 연상적 작문 기능을 가진 필자들이 국어의 어법, 문체, 규칙, 관습에 익숙해짐으로써 도달하는 수준의 기능이다. 따라서 쉽게 도달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어서 계속적인 연습이 필요하다. 이 단계에서 필자는 작문에 관한 일반적인 규칙과 관습에 통달해야 한다.
의사소통적 작문 기능	독자를 고려하여 글을 쓸 수 있는 기능이다. 예상되는 독자에 대하여 의도적으로 일정한 영향을 미치기 위해 필요한 장치를 마련할 수 있는 기능을 통합적으로 갖추었으면 의사소통적 작문 기능을 갖추었다고 보는 것이다.
통합적 작문 기능	필자가 작문의 과정에서 예상되는 독자의 입장을 고려함과 동시에 필자 자신이 독자가 되어 독자의 입장을 반영할 수 있는 기능이다. 필자가 이 수준에 도달하면 비로소 자기의 작문 기능과 자기가 생산한 텍스트에 대해 비판적 평가를 내릴 수 있다.



고, 그것을 바탕으로 더 좋은 글을 쓸 수 있게 된다. 이 단계에서의 필자는 독자에게 정보를 전달하거나 독자를 즐겁게 하기 위하여 글을 쓰는 데서 머물지 않고 자기 스스로 즐기 위해서 글을 쓸 수 있게 되며, 독자를 설득하기 위해서만 글을 쓰지 않고 자기 자신을 확신시키기 위해 논증을 전개해 나간다.	
인식적 작문 기능	글의 내용은 효과적으로 조직하고, 적합한 언어로 표현하는 데 필요한 판단적 사고력과 통찰력을 지니는 수준의 기능이다. 이 단계에서의 글은 단순 사고의 생산에 그치지 않고, 대단히 복잡한 정신 작용의 심층적 조직에서 비롯되는 창조적 사고의 생산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다.

6. 작문 전략

① 계획하기(백라고려) ② 생성하기(브레인스토밍, 마인드맵(생각그물만들기), 대화전력(협조자), 다양한 관점의 자료 읽기 ③ 조직하기(가이드라인, 다발짓기) ④ 표현하기(자유쓰기(얼른쓰기)) ⑤ 교정쓰기(훑어읽기, 돌려읽기)

7. 작문 평가

- ① 분석적 평가(세부항목별 배점, 정확한 작문 과정 문제 요소 파악, 채점기준표)
- ② 총체적 평가(필자의 다양한 측면에 대한 평가 가능, 상위인지, 태도 측면 평가 가능)
- ③ 채점기준표(분석적 평가)+총체적 평가(교사)
- ④ 상위인지 평가 항목(맥락 고려)
- ⑤ 포트폴리오(누가기록)-성장발달관찰, 지속적 평가
- ⑥ 전인성, 과정중심, 실체성, 지속성, 개별화, 통합성의 평가원리

8. 쓰기 효능감(성공경험), 쓰기 동기(내적, 외적)-반성적 사고(반성적 글쓰기), 자기 평가-쓰기윤리

9. 교과서 편제 원리

음운론

1. 중화(음절의 끝소리=평파열음화)
2. 탈락 - 자음군단순화 와 탈락(ㅎ, ㄹ, 동음)
3. 경음화 - 불파음 뒤 경음화 / 비유관사 - 어간말 비음 현상
4. ㄴ첨가 - 사잇소리, ㄴ첨가 처리 문제
5. ㅅ계 병서, ㄷ계 병서(원소리 표기 및 어두 자음군)
6. ㅁ, ㅂ, ㅇ, ㅅ, ㅈ의 성격
7. ㄹ+평음, ㄹ+각자병서 (원소리 표기)
8. ㅇ-초성에서도 자리 / 어두자음군, 어말자음군 - 표음적 표기
9. ㅅ과 ㄷ의 대립 - 8중성 - 7중성(표기) - 표기 ㅅ 발음 ㄷ
10. 하향식 이중모음 - 단모음화 - 전설모음 체계확립 - 15세기 ‘ㅣ’ 음운론적 교체 환경
11. 성조 유무 (네, 내(주격-○/관형격-×), 뉘(거성-주격, 상성-관형격)
12. 전설모음 체계 확립 - ㅣ모음 역행동화 / 구개자음의 확립-ㅣ모음에 의한 음소적 구개음화
13. ㅅ소실 - 모음조화 파괴 / ㅅ : ㅅ의 모음체계 대립

형태론

1. ‘좃다’, ‘봣다’ + 부사파생접미사 ‘-오/우-’ (생산성 없음) - 자주, 자주
(단일어화)
‘무덤’, ‘주점’, 기동 ‘명사파생접미사 생산성 없음 - 단일어화
‘엿보다’, ‘엿듣다’ ‘엿-’ - 15세기 동사

2. 체인 형태 변화 - 이중성체인, 모음 탈락, 모음탈락 후 ㄱ뎡생김, ㄴ/ㄷ, ㄴ/ㄷ
ㅁ스~ㅁ스(모음 시작 조사)~ㅁ스(부사격 와/파)

3. 이/의 (모음조화) - 관형격 조사 / ㅅ-높임유정체인, 무정물
이/의 에/에 - 부사격 조사

통사론

1. 의문보조사 / 오 계열 (의문사, 설명의문문) / 아 계열 (판정의문문)
-ㄴ다, -ㄴ다, -ㄴ다 (2인칭)
2. 내포문의 주어에 주격 조사 대신 관형격 조사의 결합
예) 제자(諸子) | 아비의 편안히 안즌 들 알오
내포문의 주어가 주격 조사 대신 목적격 조사와 결합
예) 오직 종을(똥이) 들며 뿌들 맛볼 거시라
사라막 이름(일이) 다못 읊듯 호를 슬노니
하늘이는 지민이를(가) 예쁘다고 생각한다. (현대 국어 특수) 여기다, 느끼다 제약
3. 현재형 어미 ‘-느-’ 가 근대기에 ‘-ㄴ/는-’ 으로 분화
4. 주체 높임 ‘-시-’, 객체 높임 ‘-습/줍/습/줍/습-’, 평서문 ‘-ᄀ-/-이-’
5. 사라다/살이다 - 의미 차이
-이/히/기- 외 ‘-리-’ 피동 접사 / -이-(연철, 분철 이행태) / 접사의 형태 변화, 파생적 피동문에서 통사적 피동문으로 변화 (사동문 동일)
7. 피동문-능동문=유의관계 / 능동문과 피동문 의미가 달라짐 / 피동문과 능동문 이 늘 1:1 대응이 되는 것은 아님 / -어지다 ① 통사적 피동 ② 상태변화(형용사) ③ 동사화(자동사) /
‘-게 되다’ 와의 차이점 (7월 전국 모의고사 참고)
8. 감탄문, 약속문, 허용문 = 평서문 중화(간접 인용절)
9. ‘-어라’ - ① 명령문 ② 감탄문 / 15세기 홍야서체 명령문 = 홍라체 감탄문 형태 유사
10. 종결어미의 기능 - ① 문장종결(문체) ② 상대높임등급 ③ 의향(양태)
11. 상 - -어 잇-(완료, 진행 모두 나타남)>과거시제 / -고 잇- / -게 하엿-(ㄹ-)
12. -더-와 -다-의 대립 / -더-와 -던의 차이 / -(으)리-와 -더-의 시제표지 현대문학

1. 시어의 의미 관계, 문맥적 의미, 시어의 상징(상징의 이미지)
2. 환유, 알레고리, 사회문화적 맥락
3. 공체법(독자 중심, 동일시, 감정이입, 공감)
4. 독자 중심 반응 및 비판적 해석
5. 질문
6. 상호텍스트
7. 비평문을 활용한 문학 교육 (경험 중심)
8. 내면화
9. 구성(plot), 시점과 초점화
10. 인물의 성격(소)과 배경의 역할
11. 문체 (설형, 묘사, 대화)
12. 매체 (시나리오) - 몽타주, 장면서술, 교차기법, 효과음 및 시나리오 기법(용어)
13. 극-대사 / 서사극
14. 수용과 생산 - 개작, 창작, 패러디
15. 맥락-작가, 사회문화적, 상호텍스트
16. 주제적 수용

※ 적중 사례 비교군 자료 예시 - 기타 문양별 적용은 부록을 참고



적중 사례 1

9. 다음은 '고전 시가의 전송 및 창작 과정의 문학사적 맥락을 이해할 수 있다.'라는 학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업 자료이다. (가)~(다)를 읽고,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4점]

(가)
구버는 천심녹수(千尋綠水) 도라보니 만첩청산(萬疊靑山)
십장홍진(十丈紅塵)이 언제나 ㄱ랬 느고
㉠강호(江湖)에 월백(月白)하거 든 더욱 무심(無心)하애라

<제2수>

장안(長安)을 도라보니 북궐(北關)이 천리(千里)로다
어주(漁舟)에 누어신들 니즌 스치 이시랴
두어라 내 시름 아니라 제세현(濟世賢)이 업스랴

<제5수>
- 이현보, 「어부단가」 -

(나)
취(醉)하야 누엇다가 여흘 아래 노리 려다
비 미여 라 비 미여라
낙홍(落紅)이 흘러오니 도원(桃源)이 갓갓나다
지국충 지국충 어사와
인세홍진(人世紅塵)이 언제나 ㄱ랬 니

<춘사 제8수>

창주오도(滄洲吾道)를 네브터 날런더라
달 디여라 달 디여라
칠리(七里)여흘 양피(羊皮) 옷슨 그 연더하니련고
지국충 지국충 어사와
삼천육백(三千六百) 낙시질은 손고본 제 엇디턴고

<동사 제9수>
- 윤선도, 「어부사시사」 -

(다)
우리나라에는 옛날에 ㉡ 「어부사(漁父詞)」가 있었는데 어느 사람이 지은 것인지는 모르나,
고시(古詩)를 채집하여 가락을 붙인 것이다. 이를 읊으면 강바람과 해우(海雨)가 치아와 뺨
사이에 생겨나서, 사람으로 하여금 표현히 세상을 버리고 홀로 서게 하는 뜻이 있게 한다.
이러므로 농암 이현보 선생이 좋아 하기를 게을리하지 않았으며, 퇴계 이황 선생도 끊임없이
감탄 하며 완성하였다.
그러나 음향이 서로 상응치 못하고 언어가 심히 완비되지 않았다. 대개 옛것을 채집함에 장
애를 받음으로 하여 읊조리지는 부족함을 면할 수가 없다. 내가 그 뜻을 부연하여 우리말을
사용 하여 「어부사시사」 각 1편 10장을 지었다.

- 윤선도, 「어부사시사 발문」 -

적중

<작성방법>

- (가)의 ㉠과 대립적 관계에 있는 세계를 나타내는 표현을 (가)에서 찾아 쓰고, 그것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를 서술할 것.
- (다)의 ㉡을 (나)의 작가가 공감적, 비판적으로 수용하여 자신의 작품을 창작했다고 할 때, (다)를 참고하여 (나)에 나타난 공감적, 비판적 수용 양상을 (나)의 구절을 활용하여 각각 서술할 것.

[7-8월 모의문항집]

10. 다음은 사대부 문학에 드러나는 대립적 공간의 의미를 통해 화자의 태도를 감상하고자 한다.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4점]

(가)
이 등에 시름 업스니 漁父(어부)의 생애이로다.
一葉扁舟(일엽편주)를 萬頃波(만경파)에 띄워 두고
人世(인세)를 다 니젓거니 날 가는 줄로 안가.

구버는 千尋綠水(천심 녹수) 도라보니 萬疊靑山(만첩청산)
十丈紅塵(십장 홍진)이 언제나 ㄱ랬느고.
江湖(강호)에 月白(월백)하거는 더욱 無心(무심)하애라.

㉠長安(장안)을 도라보니 北關(북궐)이 千里(천 리)로다.
漁舟(어주)에 누어신들 니즌 스치 이시랴.
두어라 내 시름 아니라 濟世賢(제세현)이 업스랴.

이현보, 「어부가」

(나)
夕陽陽이 빗겨시니 그만하야 도라가자
돈디여라 돈디여라
岸安柳류汀汀(안화)는 고비고비 새롭고야
至지芻國應(지국충) 至지芻國應 於어思家(어사)와
㉡三삼公公을 불리소냐 萬萬事(만만사)를 생각하랴

낙시줄 거더노코 蓬蓬窓창의 들을 보자
닫디여라 닫디여라
하마 밤들거냐 子子規(규)소리 물게 난다
至지芻國應 至지芻國應 於어思家(어사)와
나쁜 興興이 無窮궁(궁)히 갈 길홀 니젓따다

來日(일)이 또 업스랴 봄밤이 몇던세리
빅브터라 빅브터라
낮대로 막대삼고 柴(채)扉(비)를 차자보자
至지芻國應 至지芻國應 於어思家(어사)와
漁父(어부)生(생)涯(涯)는 이렇구려 디넬로다

윤선도, 「어부사시사 춘사(春詞)」

적중

<작성 방법>

- (가)와 (나)에서 ㉠과 ㉡에 대립되는 공간을 찾아 쓰고, 화자에게 공간이 가지는 의미를 서술할 것.
- (가)와 (나)의 「어부의 생애」에서 드러나는 화자의 삶의 태도를 서술한 후, 각 화자의 정서를 찾아 그 차이점을 서술할 것.



적중 사례 2

3. (가)는 강연의 결론 부분이고, (나)는 연설의 방법에 대한 설명이다. (나)를 참고하여 (가)에 적용된 연설의 방법을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4점]

(가)

젊은이가 젊은이다운 건, 이 시대의 진리를 추구하며 미래 지향적인 사고방식을 탐닉할 때 진면목을 보여 줍니다. 현실 사회의 부조리, 부패, 부정, 무질서 등 모든 악습을 일소하고 혁신 하려면 아니 혁신할 수 있는 소망 있는 전제가 있다면, 그건 바로 청춘을 누리는 젊음에 있습니다.

... (중략) ...

우리에게 땅도, 돈도, 자연도 넉넉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무엇이 의지할 근본일까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의 질'입니다. 청춘에 사는 '젊은이의 질'에 있습니다. 사람 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 (중략) ...

우리의 심장인, 우리의 장래를 떠맡은 청춘 여러분! 사랑을 하지 않고는 살 수 없다는 여러분, 여성을 사랑해야 되겠고, 남자도 사랑해야 되겠지만, 민족도 사랑하고, 국가도 사랑하십시오. 운명 공동체인 내 민족이 죽으면 나도 같이 죽으리라 생각을 한다면, 나 하나 잘사는 것은 아무 의미 없다는 것을 내 젊음 때 알았으면 내가 그렇게 했을 것을, 다 늙어 죽어 가며 이를 깨달아 여러분에게 전하 주니, 위대한 민족 사회를 위해 살아 주기를 기대하며 다음의 당부를 하고 말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청춘 중의 위대한 청춘, 건실한 청춘, 협동심을 갖춘 청춘, 절도 있는 청춘, 부지런한 청춘, 함께 살며 번영하길 원하는 청춘, 세계에서 제일가는 청춘 중의 청춘이 되라!

- 이태영 변호사의 '언어교양대학' 강연 중(1974) -

(나)

청중이 듣고 이해하기 좋은 연설을 하기 위해서는 아이디어가한 자리에서 다음 자리로 자연스럽게 이동해야 한다. 급작스럽게 논의가 바뀌면 사고 연결에 무리가 생기므로 청자가 내용의 논리적 구조를 쉽게 이해하도록 앞의 내용 정리하기, 뒤의 내용 안내하기 등의 기능을 가진 내용 연결 표현을 적절히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 (중략) ...

연설의 결론은 '종료 신호', '요점 재강조', '결언'으로 구성된다. 결론은 연설의 결론 중의 결론에 해당하는 것으로 더 이상 새로운 아이디어를 소개하거나 지나간 요점을 재강조할 필요는 없고, 청중에게 연설 전체에서 논의했던 모든 것들이 의미를 갖도록 결언 방법을 적절히 사용해야 한다. 결언에서는 유명한 말, 고사성어, 문학 작품, 유머 등을 인용하기. 연설의 내용이 가지는 미래 상황에 대한 의미를 언급하기, 청중을 끌어들이면서 연설을 맺기 등으로 여운을 남기며 마무리한다.

<작성방법>

- (나)의 내용 연결 표현 중 쌍방향 의사소통 효과를 유발하는 표현을 (가)에서 찾아 첫 어절과 끝 어절을 쓰고, 그렇게 생각한 이유를 서술할 것.
- (가)의 ㉠에 사용된 결언 방법을 쓰고, 이 방법에 대하여 설명할 것.

5. 다음은 어느 고등학교 연설 수업 시간에 학우들을 대상으로 연설한 대본을 제시한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4점]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들께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일회용품의 사용에 대해서 말해보고자 합니다. 사실 저도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그동안 일회용품을 정말 많이 사용했었습니다. 일상 생활에서 일회용품은 정말 편리합니다. 그래서 사실 일회용품을 쓰지 않으면 조금 불편하기도 합니다. 무의식중에 편리함을 추구하다보면 저도 여러분처럼 어느새 일회용품을 쓰고 있지 뭘까. 이런 제가 여러분들께 과연 일회용품을 쓰지 마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까요? 하지만 최근에 일회용품 사용이 얼마나 환경 파괴의 큰 주범인지 알게 되면서부터는 스스로 일회용품 쓰지 않기 운동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A)

그런데 분명 여러분들 중에서 ㉠ '일회용품을 쓰는게 왜 문제지? 일회용품이 왜 환경 파괴의 주범이지?'와 같은 질문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 둘러서 말씀드리지 않고 그 원인부터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원인은 일회용품의 주재료에 있습니다. 대부분의 일회용품이 플라스틱과 같은 자연 환경에서는 분해되지 않는 인공적인 재료입니다. 특히 플라스틱이나 비닐과 같은 일회용품이 노출되었을 때는 환경 파괴는 물론이고 생태계를 위협하기까지 합니다. 다음의 영상을 한 번 보실까요. (영상을 다 보고) 방금 여러분이 보신 영상 속의 거북이는 태평양에 서식하는 바다 거북입니다. 거북이의 코 속에서 플라스틱 이물질이 나오는 영상을 보셨지요. 다른 거북이는 바다 속의 비닐을 먹이로 알고 먹었다가 그만 목 주변과 위에 비닐이 걸려서 굶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무심코 버린 일회용품이 이런 최악의 상황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중에서는 이런 생각도 하실 겁니다. 나 하나쯤 일회용품 안 쓴다고 문제가 해결될까라고요. 다음은 한 공신력 있는 연구 기관의 보고서입니다. 함께 보실까요. (자료를 영상으로 보면서) 다음의 영상은 미국의 캘리포니아 주의 일회용품 안 쓰기 운동이 벌어진지 약 한 달간의 성과를 그래프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한 달만의 성과로 텀페양에 떠도는 각종 오염 물질이 전년도 대비 약 30%나 줄어 들었습니다. 다음 그래프를 보시죠. (자료를 영상으로 보면서) 이 그래프는 미국 환경 운동본부에서 10년간 플라스틱 배출량을 조사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OECD 선진국에서 당당히 우리나라가 1등을 차지하고 있지요. 다음 사진을 보실까요. 이곳은 현재 우리나라에 있는 플라스틱과 비닐로 이루어진 산입니다. 미국 CNN 방송에서 촬영해 간 사진인데요.

(B)

정말 부끄럽습니다. 나 하나쯤이 아니라 지금은 나부터 시작해야 하는 상황이 우리나라에서 그리고 여러분에게서 요구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도 조금 편하다는 이유로 각종 일회용품을 계속 사용하실건가요? 우리 나라는 예부터 금수강산이라고 불려 졌습니다. 비단처럼 아름다운 우리 강산에 플라스틱과 비닐과 같은 일회용품의 쓰레기가 나뉘는 것을 보고만 계시건가요?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참여하길 바랍니다. 모두가 조금의 불편을 감수하고 자연을 아낀다면 우리나라가 전 세계의 환경 친화 국가로서 본보기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보 기>

내용 연결 표현은 문자 그대로 선행 내용과 후행 내용의 교량 역할을 담당한다. 이러한 내용 연결 표현의 기능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먼저 내용의 논리적 구조 묘사로 청자로 하여금 지금 논의가 어디까지 진행되었으며 현재를 어디를 이야기하고 있는지 위치를 지정해 주는 역할을 한다. 또한 형식적 측면의 응집성 외에도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와 청자의 심리적 결속을 가져오기도 한다. 이런 표현은 청자와의 적극적인 교감을 시도하고 개인적 관련성을 높이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질의 형태도 쌍방향 대화 효과를 유발한다. 특히 연설의 도입이나 정리 단계에서 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작성 방법>

- (A)와 (B)에서 드러나는 설득 전략을 각각 쓰고, 그에 따른 근거를 서술할 것.
- <보기>를 고려할 때 ㉠과 ㉡의 내용 연결 표현의 기능의 차이를 서술할 것.

【 예시 답안 】

(A)에서는 자신의 일화를 바탕으로 공감대를 형성하여 감정에 호소(감성적 설득 전략)하고 있으며, (B)에서는 전문적 자료를 바탕으로 이성적 설득 전략을 활용하고 있다.

㉠은 청자에게 자신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와 심리적 결속을 가져오는 내용 연결 표현인 반면 ㉡은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미리 알려주어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내용 연결 표현이다.



【 제정 기준 】

1	○ 공감대 형성 / 감성적 설득전략 - 1점
	○ 전문적인 자료 / 이성적 설득전략 - 1점
2	○ 메시지와 청자의 심리적 결속 - 1점
	○ 예고를 통한 청자의 이해를 도움 - 1점

【 참고 내용 】

내용 연결 표현의 기능

① 내용의 논리적 구조 묘사

- * 선행 내용과 후행 내용의 교량 역할을 담당
 - * 실제 담화에서 대부분의 의미 기능이 후행 내용에 대한 예고 기능으로 이루어진다.
(선행 내용에 대해 언급하는 '요약'을 제외한 나머지)
 - 화자의 의식 속에 있는 전체 대용의 구조를 청자에게 길 안내하듯 묘사
 - * 청자로 하여금 지금 논의가 어디까지 진행되었으며 현재는 어디를 이야기하고 있는지 위치를 지정해주는 역할
 - * 논의의 범위를 한정하는 표현을 통해 청자가 인지적으로 처리해야 할 영역을 한정해주는 역할
 - * 원인과 결과, 문제와 해결책 등 단락 간의 관계를 선명하게 하여 전체 논의에 대한 청자의 이해를 돕는 역할
- 구어 의사소통에는 없는 시각적 단서들을 청각 신호로 제공하여 청자의 이해를 수월하게 하는 데 기여하는 것들

② 메시지와 청자의 심리적 결속

- * '응집성'을 중심으로 메시지 내에서 문장과 문장, 또는 단락과 단락 간의 결속을 강조하는 대부분의 메시지 연결에 관한 기존 논의와 달리 화자의 의사소통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메시지 내의 결속만으로는 부족
 - 설득 메시지에서 단락 간의 결속이 문법적으로 완벽하더라도 설득적이지 않을 수 있고, 결속이 느슨하더라도 설득적일 수 있음
- * 설득 의사소통 환경에서 화자에 의해 발화되는 메시지 외에 다양한 요인들이 영향을 주고받음 그 중 설득 효과의 핵심 = 청자의 심리
- * '내용의 논리적 연결에 기여 + 구어 의사소통에 필수적인 청자와의 교감 유지' 기능 감당
- * 다양한 방식으로 청자의 심리를 화자가 전개해 가는 논의의 흐름 속으로 끌어들이
- * 논의의 연결과 전환이라는 기본적인 기능과 더불어 청자와의 심리적 간극을 지속적으로 좁혀 주는 기능을 함

③ 쌍방향 대화 효과 유발

- * 설득 메시지에는 순서교대가 일어나 대화 상황과 같은 장면 두드러진 양상 → '질문하기'
- * 내용 연결 표현의 많은 부분에서 질문을 통한 상호작용이 이루어짐
- * 이러한 대화식의 의문형 내용 연결 표현은 논의 전환이라는 고유의 기능 충실히 수행
- * 평서형 연결 표현보다 청자를 의사소통 상황 속으로 끌어들이는 효과가 더욱 강함
- * 직접적 대답을 원하는 것은 아니나, 청자가 화자의 논의에 대해 지속적으로 주목할 수 있도록 심리적 결속을 위한 전략적 측면에서 사용





1. 외법 PART 적중도

2교시

1. (가)는 발표 지도에 대한 교사 간의 대화이고, (나)는 준비된 말하기에 대한 설명이다. (가)와 (나)를 참고하여 괄호 안의 ㉠, ㉡에 해당하는 말을 순서대로 쓰시오. [2점]

(가)
교사 A : 주제에 맞게 내용을 구성하여 발표를 하는 수행 과제를준 후 발표를 시켰더니, 학생이 청중을 보지도 않고 발표문만 보며 그대로 읽어요. 그러다 보니 발표를 듣는 학생들의 반응이 별로 좋지 않고 학생의 발표 능력 신장 에도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 고민이예요.
교사 B : 미리 작성한 발표문이나 대본을 그대로 읽는 것도 문제 지만, 저는 그것을 암기해서 청중 반응과 상관없이 줄줄 읊어대는 식의 수행도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사 C : 그러면 학생에게 (㉠)을/를 작성하게 한 후 청중의 반응을 예상하며 연습을 하게 해 보세요. 이것에 기초해 연습할 거예요. 보면 같은 내용도 여러 가지로 표현해 보게 되어, 실전에서도 발표문을 읽지 않고 청중의 반응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효과적으로 발표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나)
국어 의사소통에는 사전 준비 없이 하는 '즉흥적 말하기'와 말할 내용에 대하여 계획하고 준비를 하는 '준비된 말하기'가 있다.
준비된 말하기를 수행할 때 발표문을 보고 그대로 읽어서는 효과 적인 말하기를 하기 어렵다. 준비된 말하기라 하더라도 청중의 반응에 따라 자신의 언어적·비언어적 표현을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 듣기, 말하기는 화자와 청자가 구어로 의사소통을 하면서 상호 작용하는 것을 넘어 (㉡)을/를 통해 역동적으로 의미를 창조해 가는 과정이다. 청중과 시선을 맞추며 청중의 반응에 따라 말할 내용과 방법을 조절해 가며 역동적으로 의미를 주고받는 것은, 청중의 반응을 무시한 채 준비된 발표문을 일방적으로 낭독하는 것과는 다르다.

1-2월 강의 교재 「신의 안수 언어사용기능편」 22-23페이지
참고 문헌 : 외법교육론 개정판 / 국어교육의 이해

3교시

3. (가)는 강연의 결론 부분이고, (나)는 연설의 방법에 대한 설명이다. (나)를 참고하여 (가)에 적용된 연설의 방법을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4점]

(가)
젊은이가 젊은이다운 건, 이 시대의 진리를 추구하며 미래 지향적인 사고방식을 탐닉할 때 진면목을 보여 줍니다. 현실 사회의 부조리, 부패, 부정, 무질서 등 모든 악습을 일소하고 쇄신 하려면 아니 쇄신할 수 있는 소망 있는 전제가 있다면, 그런 바로 청춘을 누리는 젊음에 있습니다.
... (중략) ...
우리에게 땅도, 돈도, 자연도 넉넉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무엇이 의지할 근본일까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의 질'입니다. 청춘에 사는 '젊은이의 질'에 있습니다. 사람 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 (중략) ...
우리의 심장인, 우리의 장래를 떠맡은 청춘 여러분! 사랑을 하지 않고는 살 수 없다는 여러분, 여성을 사랑해야 되겠고, 남자도 사랑해야 되겠지만, 민족도 사랑하고, 국가도 사랑하십시오. 운명 공동체인 내 민족이 죽으면 나도 같이 죽으리라 생각을 한다면, 나 하나 잘사는 것은 아무 의미 없다는 것을 내 젊음에 알았으면 내가 그렇게 했을 것을, 다 늙어 죽어 가며 이를 깨달아 여러분에게 전해 주지 못했던 민족 사회를 위해 살아 주기를 기대하며 다음의 당부를 하고 말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청춘/중의 위대한 청춘, 건실한 청춘, 협동심을 갖춘 청춘, 절도 있는 청춘, 부지런한 청춘, 함께 살며 번영하길 원하는 청춘, 세계에서 제일가는 청춘 중의 청춘이 돼라!
- 이태영 변호사의 '언어교양대학' 강연 중(1974) -
(나)
청중이 듣고 이해하기 좋은 연설을 하기 위해서는 아이디어가한 자리에서 다음 자리로 자연스럽게 이동해야 한다. 급작스럽게 논의가 바뀌면 사고 연결에 무리가 생기므로 청자가 내용의 논리적 구조를 쉽게 이해하도록 앞의 내용 정리하기, 뒤의 내용 안내하기 등의 기능을 가진 내용 연결 표현을 적절히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 (중략) ...
연설의 결론은 '종로 신호', '요점 재강조', '결언'으로 구성된다. 결언은 연설의 결론 중의 결론에 해당하는 것으로 더 이상 새로운 아이디어를 소개하거나 지나간 요점을 재강조할 필요는 없고, 청중에게 연설 전체에서 논의했던 모든 것들이 의미를 갖도록 결언 방법을 적절히 사용해야 한다. 결언에서는 유명한 말, 고사성어, 문학 작품, 유머 등을 인용하기. 연설의 내용이 가지는 미래 상황에 대한 의미를 언급하기, 청중을 끌어들이면서 연설을 맺기 등으로 여운을 남기며 마무리한다.

<작성방법>
○ (나)의 내용 연결 표현 중 쌍방향 의사소통 효과를 유발하는 표현을 (가)에서 찾아 첫 어절과 끝 어절을 쓰고, 그렇게 생각한 이유를 서술할 것.
○ (가)의 ㉡에 사용된 결언 방법을 쓰고, 이 방법에 대하여 설명할 것.

9-11월 실전모의고사 2의 6번
9-11월 실전모의고사 6의 5번
(부록 문양 비교 자료 확인)

2. 작문 PART 적중도

7. (가)는 국어 교과서 단원의 일부이고, (나)는 교사가 교과서 재구성을 위해 단원을 분석한 내용이다. 국어 교과서 재구성 방안을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4점]

(가)
학습 목표
독자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적절한 내용을 선정하여 설명 하는 글을 쓸 수 있다.
학습 활동
1. 쓰기 목적, 주제, 예상 독자에 대해 알아보자.
○ 쓰기 목적 : 정보 전달
○ 쓰기 주제 : 환경 보호를 위한 실천 방안
○ 예상 독자 : 같은 반 친구
2. 다음 항목에 따라 독자를 분석해 보자.

분석 항목	분석 요소	분석 결과
요구	○ 독자가 내 글에서 기대하는 바는 무엇인가?	
태도	○ 독자는 주제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가?	

3. 브레인스토밍 전략을 사용하여 쓸 내용을 마련해 보자.

1. 다음은 '글쓰기의 형식적 규범과 창의적 글쓰기'라는 주제로 국어 교사들이 논의한 내용의 일부이다. 괄호 안의 ㉠, ㉡에 해당하는 말을 순서대로 쓰시오. [2점]

교사 A : 많은 선생님들이 쓰기 수업 시간에 글의 구조, 서술 및표현 방식 등과 관련된 쓰기 규범을 강조하는데, 이러한 쓰기 규범이 창의적 글쓰기를 방해한다고 말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글쓰기의 형식적 규범과 창의적 글쓰기'라는 주제로 바람직한 작문 교육 방안에 대해 논의해 보면 좋겠습니다.
교사 B : 저는 순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에게는 규범에 맞는 글쓰기 학습이 먼저고, 창의적 글쓰기는 이후 기대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 작문 이론과 사회 구성주의 작문 이론에 공감합니다. 신비평과 전통 수사학의 영향을 받은 (㉡) 작문 이론에서는 객관적인 쓰기 규범과 원리의 습득을 중시합니다. 한편 사회 구성주의 작문 이론은 쓰기를 사회적 행위로 해석하면서, 공동체 구성원 간의 대화를 통한 쓰기 규범의 내면화와 전수를 중요한 작문 교육 원리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교사 C : 창의적 글쓰기는 대개 기존의 글쓰기 규범을 벗어난 지점 에서 가능해진다고 봅니다. 새로운 글쓰기의 시도가 독자와의 소통을 어렵게 한다고 볼 수도 있지만,



적중

4. 3에서 생성한 내용을 바탕으로, 내용 조직 전략을 사용하여 쓸 내용을 정리해 보자.

5. 1~4의 활동을 바탕으로 설명하는 글을 써 보자.

제목 : _____

(나)

- ① 독자 분석 항목으로 요구, 태도를 설정한 것은 타당하다고 본다. 그러나 독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정보의 유형과 범위를 판단하고 독자의 지속적 읽기를 유인하는 효과적인 글쓰기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제시된 독자 분석 항목 외에 2가지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
- ② 과정 중심 접근법에 근거하여 단락을 잘 구성하였다고 생각 한다. 또한 특정 쓰기 전략의 습득에만 그치지 않고, 한 편의 글을 완성하도록 학습 활동을 구성한 것도 의미가 있다. ㉠ 그러나 학습 활동 4의 경우 학생들이 활동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구체적인 안내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책임 이양 원리에 따라 교사가 먼저 몇 가지 내용 조직 전략에 대해 설명하고 시범을 보인 후, 학생들이 이 전략을 적용하여 내용을 조직하도록 해야겠다.

<작성방법>

- (나)의 ①에 근거하여 '학습 활동 2'의 독자 분석표에 추가해야할 분석 항목 2가지와 각각에 해당하는 분석 요소를 1가지씩 서술할 것.
- (나)의 ②에서 교사가 상정하고 있는 교수·학습 모형을 쓰고, 쓸 내용을 조직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전략을 3가지 서술할 것.

9-11월 실전모의고사 9의 2번

9-11월 실전모의고사 9의 5번

파이널 짝기 특강 이든 자료 (논문)

(부록 문양 비교 자료 확인)

11. (가)는 교사가 작성한 평가 계획의 일부이고, (나)는 학생이 쓴 글이다. 교사의 평가 계획에서 보완할 점과 학생이 쓴 글에 대한 피드백 내용을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4점]

(가) 평가 계획

I. 평가 내용

1. 학습 목표 : 다양한 자료에서 내용을 선정하여 통일성을 갖춘 글을 쓴다.
2. 주요 학습 내용
 - ① 통일성의 개념 이해하기
 - ② 다양한 자료에서 내용 선정하기
 - ③ 통일성을 갖춘 글을 쓰기
 - ④ 통일성을 유지하며 글을 쓰려는 태도 갖기

II. 평가 요소별 평가 방법

평가 요소	평가 도구	평가 주제
통일성의 개념 이해하기	선택형 평가	교사
다양한 자료에서 내용 선정하기	분석적 평가	교사, 동료
통일성을 갖춘 글을 쓰기	분석적 평가	교사, 동료
글쓰기 태도	관찰 평가	교사

III. 평가 중점 및 유의점

1. 지식, 기능, 태도를 균형 있게 평가한다.
2. 완성된 글뿐 아니라 쓰기 과정도 함께 평가한다.
3. 자기 평가뿐 아니라 상호 평가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4. 학습 내용, 평가 요소와 일치하도록 채점 기준표를 작성한다.

IV. '분석적 평가'를 위한 채점 기준표

평가 범주	평가 요소	평가 척도				
		매우	좋음	보통	나쁨	매우

한편으로는 독자의 인식 지평을 넓히고 독자의 새로운 심미적 감수성을 일깨울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학생들에게도 이러한 새로운 글쓰기에 대한 기대를 품고 교육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사 D : 중요한 것은 글쓰기의 목적이 아닐까요? 필자의 의도나 목적을 지금의 글쓰기 규범이 잘 담아낼 수 있다면, 현재 규범을 충실하게 따르면 됩니다. 그러나 필자의 새로운 인식과 감각을 담아낼 수 없고, 독자 역시 변화에 대한 욕망이 충만하다면, 새로운 글쓰기 방식을 시도해/받아 하지 않을까요?

교사 A : 세 분의 말씀을 들어 보니, 쓰기 규범의 준수와 창의적 글쓰기는 반드시 대립 관계에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글쓰기의 목적, 독자의 요구, 주제에 대한 필자와 독자의 생각 등과 같은 (○)을/를 고려하고 이를 글쓰기에 반영하려는 태도인 것 같습니다. (○)와/과 관련된 다양한 질문을 던지고 이에 대한 답을 탐색하는 과정에서 쓰기 규범의 준수 여부는 자연스럽게 결정된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9-11월 실전모의고사 4의 2번

9-11월 실전모의고사 4의 4번

9-11월 실전모의고사 8의 2번

(부록 문양 비교 자료 확인)

		좋은			나쁨
내용	다양한 자료에서 내용을 선정하였는가?				
	내용이 정확한 사실에 근거하고 있는가?				
	내용이 새롭고 풍부한가?				
조직	글의 구조가 글의 중심 내용을 잘 드러내고 있는가?				
	문단 수준에서 통일성을 유지하고 있는가?				
	여백을 준수하고 있는가?				
표현	어휘 선정 및 사용이 적절 한가?				
	장르에 적합한 문체를 사용하고 있는가?				

(나) 학생이 쓴 글

사물에 쌓인 기억

- ① 며칠 전 어느 신문에서 한국 시장이 마케팅의 시험 무대로 떠오르고 있다는 기사를 읽었다. 우리나라 소비자들 유령에 민감하고 특히 고급 소비재를 수용하는 속도가 빨라서 한국 시장에서 먼저 제품에 대한 반응을 알아본 뒤 세계 시장의 문을 두드리라는 사례가 늘어 가고 있다는 것이다.
- ② 신문 기사는 중립적이었지만, 독자로서 이 글을 읽는 내 마음은 이중적이었다. 우리가 줄곧 외쳐 온 세계화가 어느 정도 성공했다는 증거를 읽기 시작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안심이 되었고, 세계의 소비 시장에서 적지 않은 자리를 우리가 주도하고 있다는 사실에 마음이 흐뭇했다.
- ③ 한국이 특별히 유령에 민감한 나라는 것은 모든 것이 가장 빨리 낡아 버리는 나라가 우리나라라는 뜻도 된다. 학기 초나 생일 때 요란을 떨며 샀던 소중한 물건들은 손때가 묻기도 전에 돈을 들여 처리해야 할 쓰레기 더미로 전락한다. 물건들 속에 소중하고 따뜻한 기억이 쌓이지 못하는 것은 슬픈 일이다.



- [4] 이런 슬픔이 유행을 부르는 것은 아닐까? 사람의 마음속에 세상과 만나 온 흔적이 남지 않고, 삶이 따뜻한 기억으로 채워지지 못하면 우리의 삶은 공허해지고 삭막해진다. 이렇게 삶이 충만함을 잃으니, 자연스럽게 밖에서 생산된 새로운 물건과 유행에 집착하게 된다.
- [5] 우리가 사물을 바라보며 마음의 깊은 곳에 그 기억을 간직할 때에만 사물도 그 깊은 내면을 열어 보일 것이다. 사물을 대하는 이러한 자세는 나와 세상을 함께 갈들이라는 따뜻한 마음일 것이다. 오늘은 내 옆의 오래된 물건에 눈을 돌려 보자. 그리고 그 물건에 쌓인 기억을 떠올리며 깊은 눈으로 바라보자.

<작성방법>

- '1. 평가 내용' 중 '2. 주요 학습 내용'의 ③과 Ⅲ. 평가 중점 및 유의점'의 '4'에 근거하여 교사가 작성한 채점 기준표의 '조직'에서 보완할 점을 서술할 것(단, '통일성의 개념'과 '통일성의 적용 범위'를 포함하여 쓸 것).
- (나)에 대한 피드백 내용을 구성하되, 문단 ②가 통일성이 부족한 이유를 지적하고, 수정 방안을 서술할 것(단, 부족한 이유와 수정 방안을 서술할 때는 문단 ②의 내용을 인용할 것).

7-8월 문양분석집 자료
(부록 문양 비교 자료 확인)

3. 독서 PART 적중도

6. (가)와 (나)는 비판적 읽기 수업에서 사용된 읽기 자료와 교수. 학습 자료이고, (다)는 학생들의 대화 내용이다. <작성 방법>에 따라 교수.학습 활동을 분석하시오. [4점]

(가) 읽기 자료

인문학은 왜 필요한가

현대의 필수 요건인 첨단 과학과 기술은 어떤 점에서 인간성의 상실을 야기하는 것인가? 우선 검증 가능한 진리를 얻기 위해 실험을 반복하는 자연 과학은 우리로 하여금 자신의 개성을 포기할 것을 요구한다. 자연 과학은 계산 가능성과 예측 가능성을 중시 한다. 만약 연구자의 개성과 주관적인 가치관이 개입한다면, 실험의 결과는 모든 사람이 인정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없을 것이다.

자신의 역사적 배경을 포기하기를 강요하는 자연 과학적 태도가 사회에 만연하게 된다면 인간은 점점 더 개성 있는 인격에서, 교체될 수 있는 단순한 구성원으로 전락하게 된다. 만약 전통적 세계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지식으로 대체되는 것이 현대화라고 한다면, 현대화는 필연적으로 획일화와 표준화의 방향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

자연 과학으로 인해 훼손된 삶은 보상을 요구하며, 이러한 보상의 문화적 제도가 바로 인문학이다. 자연 과학의 기술 문명에 의한 삶의 훼손은 대체로 세 가지 방향에서 진행되고 있다. 첫째, 우리의 삶이 얽어 내는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합리화를 강요하는 현대화로 훼손된다. 사회는 합리성, 객관성을 요구하면서 개인의 구체적인 이야기에는 관심을 갖지 않는다.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위해서는 우리 자신의 고유한 이야기를 가져야 한다. 우리 사회가 한편으로는 과학과 기술을 통해 계몽되고 미신을 타파하는 탈(脫) 마법화의 과정을 거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예술과 문화를 통해 새로운 신화와 이야기를 만들어 내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기술 문명에 의한 두 번째 훼손은 인간의 자연성 상실이다. 우리의 세계는 점차 자연적인 환경을 상실하고 인공 세계로 변하고 있다.

그 어떤 시대도 현대만큼 자연 세계를 파괴하지 않았지만, 현대처럼 자연 세계를 보존한 시대도 없다. 이처럼 현대화는 보존할 만한 가치에 대한 성찰을 요구함으로써 인문학을 더욱더 불가피하게 만든다.

끝으로 현대화는 전통의 의미를 박탈함으로써 우리가 나아가야 할 규범적 방향을 불투명하게 만든다. 개발과 관련하여 논란을 일으키는 문제들은 경제성과 효율성만으로는 결정할 수 없는 문제들이다. 그것은 인간다운 삶에 관한 성찰과 규범적 방향을 요구한다.

우리가 빈곤과 재해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자연 과학과 기술이라고 한다면, 현대화 과정에서 야기되는 인간성 상실을 견뎌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은 인문학이다. 우리 사회가 과학과 기술로 현대화되면 될수록 인문학이 더욱더 필요하게 되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나) 교수.학습 자료

활동 1 다음 표를 활용하여 '인문학은 왜 필요한가'의 내용을 정리해 봅시다.

현대의화 특성	· 첨단 과학, 자연 과학 기술의 발전 · _____ · _____
_____	· 우리의 삶이 얽어 내는 이야기 훼손 · _____ · _____

4. (가)는 '자발적 독서' 수업 계획안이고, (나)는 '자발적 독서' 관련 안내 자료이다. (나)를 참고하여 (가)의 개선 방안을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4점]

(가) '자발적 독서' 수업 계획안

차시	단계	교수 학습 내용
1	수업 안내	○ 수업의 전체 진행 과정 소개 ○ 학생들의 역할 및 수행 과제 안내
2	도서 선정	○ 학년 수준에 맞는 도서 목록 제공 ○ 학교에서 정한 '이 달의 책' 한 권을 함께 읽을 책으로 선정
3	책 읽기	○ 도서관에서 책 읽기
4	읽기 활동	○ 문단별 주제 및 세부 내용 파악하기 ○ 문단 간 연결 관계 파악하기 ○ 글 전체 내용 요약하기
5	생각 나누기	○ 읽은 책 내용 중 주제를 정하여 이야기하기 ○ 각 모둠별로 이야기한 내용 발표하기
6	글쓰기	○ 이야기한 주제로 글쓰기
7	정리 하기	○ 자신이 쓴 글 발표하기 ○ 자신의 '자발적 독서' 과정 점검하기

(나) '자발적 독서' 관련 안내 자료

자발적 독서의 목표는 학생들이 하여금 지속적인 독서 활동을 통해 바람직한 독서 습관을 기르고 평생 독자로서의 소양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다. 많은 연구자들은 자발적 독서를 위한 중요한 방법으로 자기 선택 독서와 거시적 독서를 강조하고 있다. 자기 선택 독서는 '자율성' 요인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독서 상황에서 학생들에게 자율성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 학생들은 실제 독서 과정에서 다양한 선택의 기회를 통해 자신의 수준을 가늠하고, 호기심, 취향, 관심사 등과 관련 하여 내재적 동기를 작동시킨다. 그리고 이러한 내재적 동기의 발현과 충족의 지속적 노력은 학생 독자의 자발적 독서 경향을 강화한다.

한편 자발적 독서의 지도는 미시적 독서 방법이 아닌 거시적 독서 측면에서의 계획과 실천을 강조한다. 거시적 독서에서는 글에 대한 세부적 이해나 사실적 이해보다는 확산적 이해를 강조한다. 즉, 글에 대한 정확한 이해에만 그치는 것을 지양하고 글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활동, 글이 주는 즐거움과 감동을 내면화하고 누리는 활동 등을 권장한다. 이와 같은 거시적 독서 방법의 지도를 통해 자발적 독서가 확대될 필요가 있다.

<작성방법>

- [A]에 근거하여 2차시 수업의 문제점을 2가지 서술할 것.
- [B]에 근거하여 4차시 수업의 보완점을 2가지 서술할 것.

9-11월 실전모의고사 1의 9번
9-11월 실전모의고사 9의 6번
7-8월 문양분석집 독서편



인문학의 역할	· 우리 자신의 고유한 이야기 회복 · _____ · _____
---------	---

활동 2 글쓴이의 주장을 '문제 - 해결 방안' 방식으로 작성해 봅시다.
· _____ ㉠ _____

(다) 학생들의 대화 내용
학생 A : 나는 글을 읽으면서 인문학의 필요성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되었어. 너희들은 이 글을 어떻게 읽었는지 궁금해.
학생 B : 나는 현대화 방향을 '획일화'와 '표준화'로 설명한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 들었어. 우리 주변만 보더라도 삶의 보편성과 다양성이 존재하잖아. 그렇다면 현대화의 방향을 이렇게 두 가지로만 설명 하는 것은 무리가 아닐까?
학생 C : 글쓴이는 인문학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여. 글에서 이런 주장이 반복되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강조하는 의도라고 이해되기는 하지만, 그래도 필자가 한쪽 관점으로 너무 치우었다고 생각해.
학생 A : 너희들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어. 나는 필자의 주장이 옳다고만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

<작성방법>
○ (가)와 (나)를 바탕으로, ㉠에 들어갈 내용을 쓰고, 활동 1이 읽기 전략으로 어떤 의의가 있는지 서술할 것.
○ (다)의 [A]에서 학생 B, 학생 C가 사용한 비판적 읽기의 준거를 쓰고, 각 준거에 대해 설명할 것.

9-11월 실전모의고사 8의 2번
9-11월 실전모의고사 9의 6번
7-8월 문양분석집 독서편
(부록 문양 비교 자료 확인)

(부록 문양 비교 자료 확인)

4. 문법 PART 적중도

4. 다음은 학생과 교사 간의 대화이다. 괄호 안의 ㉠, ㉡에 해당하는 말을 순서대로 쓰시오. [2점] 학생 : 선생님, '늙다'는 왜 형용사가 아닌가요? 교사 : 아, '늙다'가 형용사라고 생각했나 보군요. 왜 그렇게 생각 했는지 말해 볼래요? 학생 : 네, 의미 면에서 '늙다'는 '태어난 지 오래되어 나이가 많은 상태'를 뜻하는 것이라서요. 영어의 'old' 역시 형용사잖아요. 교사 : 아, 그렇게 생각했군요. 그런데 국어의 단어들을 품사로 구분하고 분류할 때는 '의미'만 고려하는 것이 아니에요. 특히 국어에서는 단어의 (㉠)을/를 중요하게 고려해요. 이런 점 때문에 단어가 활용을 하는 것인지는 그렇지 않은 것인가가 국어의 품사를 가르는 데 중요한 기준이 돼요. 그리고 동사와 형용사는 활용의 양상에서 여러 가지 차이가 있어요. 만일 (㉡)을/를 '늙다'의 현재 관형사형으로 보면 '늙다'를 형용사라 하겠지만, 그건 과거 관형사형이기 때문에 '늙다'를 형용사라고 하지 않는 거예요. 9-11월 실전모의고사 8의 8번 (부록 문양 비교 자료 확인)	8. 다음 (1), (2)는 15세기 국어 자료이고, (3)은 현대 국어 자료이다. 15세기 국어에서 용언 어간의 활용과 이후의 변화를 탐구하여 그 결과를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4점] (1) 즐겁고 <月釋 21 : 6b>, 즐겁더니 <月釋 21 : 207a>, 즐거버 <月釋 4 : 58b>, 즐거부며 <月釋 1 : 35b> (2) 잡고 <月釋 20 : 27a>, 잡더니 <月釋 25 : 92b>, 자바 <杜詩 6 : 25a>, 잡버니 <杜詩 14 : 19b> (3) 즐겁고, 즐겁더니, 즐거워, 즐거우며 <작성방법> ○ (1)에서 어간의 교체를 설명하기 위해 상정할 수 있는 2가지 교체 양상을 쓰고, 2가지 중 어느 것이 더 설명적 타당성이 높은지 (2)를 고려하여 그 이유를 설명할 것(단, 교체는 '무엇이, 어떤 환경에서, 무엇으로'의 형식으로 쓸 것). ○ (1)>(3)에 일어난 음운 변화를 쓰고, 현대 국어 자음 체계와 비교하여 설명할 것. 9-11월 실전모의고사 2의 5번 7-8월 문양분석집 문법편 (부록 문양 비교 자료 확인)
10. <자료>의 단어들은 접미사 '-이'가 결합하여 파생된 부사로서, 'X-이' 형식으로 분석된다. 'X'에 대해 탐구한 내용을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4점] <자 료> 점점이, 꽃이, 같이, 날같이, 눈같이, 더욱이, 뚜렷이, 일찍이 <작성방법> ○ <자료>의 모든 단어에 대하여 'X'를 공통점이 있는 것끼리 4부류로 나누고, 그 공통점을 각각 쓸 것. 9-11월 실전모의고사 4의 7번 7-8월 문양분석집 문법편 파이널 짝기 특강 이든 자료 (논문) (부록 문양 비교 자료 확인)	11. 다음은 음소 /o/(/ŋ/), /ɐ/(/h/)의 특성을 분석하기 위한 자료 이다. /o/과 /ɐ/는 상보적 분포를 이루에도 각각 음소이다. 그 이유를 <작성 방법>에 따라 설명하시오. [4점] (1) 땅[땅], 땅도[땅도] (2) 밀알[미래], 참외[자외] (3) 당다[다대], 땅이[땅으리] <작성방법> ○ (2)에서 'o'이 음가가 없음 (2)를 통해 설명할 것. ○ 표면형에서 /ɐ/가 종성에 실현되지 못함을 (3)을 통해 설명할 것. ○ /o/, /ɐ/를 음소로 판별할 수 있는 증거가 되는 예를 각각 제시할 것. 9-11월 실전모의고사 8의 8번



7. 다음을 참고하여 <자료>의 ①~④를 분석한 결과를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4점]

문장의 형성에서 동사가 핵심적인 역할을 하므로 동사에 따라 문장 형성상의 특징이 다르다. 자동사는 목적어가 없는 문장을 형성하고, 타동사는 목적어가 있는 문장을 형성한다. 이를 각각 자동문, 타동문이라 한다. 자동사는 본래부터 자동사인 것과 타동사에 피동 접사가 결합하여 자동사가 된 것이 있다. 타동사도 본래부터 타동사인 것과 자동사, 형용사 및 타동사에 사동 접사가 결합하여 타동사가 된 것이 있다. 한편, 동사 가운데는 본래부터 자동사라도 타동사라도 쓰이는 동사가 있다.

<자 료>

- (1) a.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인다.
b. 영미가 태극기를 펄럭인다.
- (2) a. 아이는 병원에서 열이 금방 내렸다.
b. 병원에서 아이의 열을 금방 내렸다.
- (3) a. 손님이 신발방이 들었다.
b. 강아지가 앞발을 번쩍 들었다.
- (4) a. 나는 밤중에 책을 잘 안 읽힌다.
b. 엄마가 밤중에 아이에게 책을 읽힌다.

<작성방법>

- (1)과 (2)의 동사들의 문장 형성상의 공통점을 설명할 것.
- (3), (4)의 각 동사들의 문장 형성상의 특징을 설명할 것(단, a, b의 동사들의 특징을 각각 설명할 것).

9-11월 실전모의고사 2의 6번

9-11월 실전모의고사 5의 3번

7-8월 문양분석집 문법편

(부록 문양 비교 자료 확인)

(부록 문양 비교 자료 확인)

8. <자료>에서 ㉠ ~ ㉢은 2개의 형태소가 결합한 것이다. 다음을 참고하여 <자료>의 ㉠~㉢을 분석한 결과를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4점]

동일한 형태가 서로 다른 의미 또는 기능을 가진 별개의 형태소인 경우도 있고, 둘 이상의 다른 형태가 동일한 의미 또는 기능을 가진 경우도 있다. 전자의 예로 '엇던 사람고 <杜詩 8 : 28b>에서 '사람고'의 보조사 '고'와, '고돌 보고 막스미 便安하야 <月釋 12:28b>에서 '보고'의 어말 어미 '고'를 들 수 있다. 후자의 예로는 '흐느다 <杜詩 6:5a>의 어말 어미 '-다'와, '보'는 '보'하랴 <月釋 2 : 46a>의 어말 어미 '-라'를 들 수 있다.

<자 료>

- 俱夷 문주복사디 ㉠으스게 쓰시리 <月釋 1:10b>
- 한 거슬 흐나히 ㉡드외에 밍그루시며 <月釋 4:40b>
- 놀개 두위터 明月스 ㉢둘에에 놀려 <杜詩 24:24a>

<작성방법>

- ㉠~㉢을 각각 형태소 분석할 것(단, 교체가 일어난 것은 교체가 일어나기 전의 형태로 분석할 것).
- ㉠~㉢ 중 품사가 바뀐 것을 찾아 바뀐 후의 품사 이름을 쓰고, 바뀐 후의 품사를 그렇게 판단한 근거를 <자료>에서 찾아 설명할 것.

9-11월 실전모의고사 3의 3번

(부록 문양 비교 자료 확인)

5. 고전문학 PART 적중도

3. 다음을 읽고 <보기>의 괄호 안의 ㉠에 해당하는 말을 쓰고, ㉡에 해당하는 부분을 (나)에서 찾아 쓰시오. [2점]

(가)
생원 : 네 이놈, 양반을 모시고 나왔으면 새처를 정하는 것이 아니고 어디로 이리 돌아다니느냐?
말뚝이 : (채찍을 가지고 원을 그으며 한 바퀴 돌면서) 예예, 이마만큼 터를 잡고 참나무 울장을 드문드문 꽃고 깃을 푸근푸근히 두고 문을 하늘로 낸 새처를 잡아 났습니다.
생원 : 이놈, 뭐야!
... (중략) ...
㉠양반들 : (새처 안에 앉는다.)
말뚝이 : 쉬이, (음악과 춤을 멈춘다.) 생님 새처 방이 어떻습니까?
생원 : 참 좋다.
말뚝이 : 만복이 들어오라고 사방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생원 : 야 이놈, 문을 열어야 복이 들어오느냐?
말뚝이 : 예, 그렇습니다. '개문이 만복래'라 문을 열어야 복이 들어옵니다. 복이 들어오면 소인이 잡을라고 하니 생님도 잡으시오.
양반들 : (일어서려고 한다.)
말뚝이 : 가만히 계시오. 소인이 복 들어왔다고 할 때 일어나 잡으시오.
말뚝이 : 복 들어왔소!
양반들 : (일어나서 복을 잡으려고 두 손을 벌려 들고 사방으로 돌아다니다.)
말뚝이 : (이때 "복이야 복이야" 소리치며 채찍으로 양반들을 때린다.)
양반들 : (쫓기며 퇴장한다.)

- 제6과장 양반춤, 「봉산탈춤」 -

(나)
평양 감사 : 너희 고을 풍속이 사냥을 하면 강계포수(江界砲手)가 일등이라니 불일내(不日內)로 대령시켜라.
관속 : 네, 일변(一邊) 노문 놓아 대령하겠습니다.
(포장(布帳) 가로 빙빙 돌아다니다.)
어, 길도 참 험하다. 별안간 사냥은 한다고 남을 이렇게 고생을 시키나. 관속인지 막걸리인지 그만두어야지 이놈의 팔자는 심부름만 하고 오십 평생을 보내니 화가 나서 못 살겠군.

9. 다음을 '고전 시가의 전송 및 창작 과정의 문학사적 맥락을 이해할 수 있다.'라는 학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업 자료이다. (가)~(다)를 읽고,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4점]

(가)
구버는 천심녹수(千尋綠水) 도라보니 만첩청산(萬疊靑山)
십장홍진(十丈紅塵)이 언제나 그렸 눈고
㉠강호(江湖)에 월백(月白)허거 든 더욱 무심(無心)하애라

<제2수>

장안(長安)을 도라보니 북궐(北闕)이 천리(千里)로다
어주(漁舟)에 누어진들 나흔 스치 이시라
두어라 내 시름 아니라 제세현(濟世賢)이 안스라

<제5수>

- 이현보, 「어부단가」 -

(나)
취(醉)하야 누연다가 여흘 마래 누리려다
비 미여 라 비 미여라
낙홍(落紅)이 흘러오니 도원(桃源)이 갓갓도다
지국충 지국충 어사와
인세홍진(人世紅塵)이 언제나 그렸 누리

<춘사 제8수>

창주오도(滄洲吾道)를 네브터 닐런더라
달 디여라 달 디여라
칠리(七里)여흘 양피(羊皮) 옷슨 그 얻더하리련고
지국충 지국충 어사와
삼천육백(三千六百) 낙시질은 손고본 제 엇디턴고

<동사 제9수>

- 윤선도, 「어부사시사」 -

(다)
우리나라에는 옛날에 ㉡ 「어부사(漁父詞)」가 있었는데 어느 사람이 지은 것인지는 모르나, 고시(古詩)를 채집하여 가락을 붙인 것이다. 이를 읊으면 강바람과 해우(海雨)가 치와 뻗



... (중략) ...

포수 : 그럼 무엇이란 말이나?

관속 : 감사께서 도임 후에 이 고을 백성을 잘 다스릴 생각은 꿈에도 않고 대변에 평소냐이다.

포수 : 평양 감사인지 모기 잡는 망사인지 그래 도임하면서 평소냐 먼저 한다니, 오는 늬 족족 그 모양이로구나. 그런데 무슨 큰일이란 말이나?

관속 : 평을 못 잡으면 네 목이 간다 봐라. 그러니까 큰일이지 무엇이냐?

포수 : 이것 잘못 걸렸구나.

(관속이 일등 포수와 사냥 잘하는 매를 불러 온 후 감사에게 아뢴다.)

관속 : 이뢰어라. 여주어라. 안존 분부대로 강계 일등 포수와 산진이.수진이.날진이.해동 참 보라매 다 대령했습니다.

- 제6막 매사냥, 「꼭두각시놀음」 -

<보 기>

민속극에서 비판과 풍자를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가면이나 인형을 사용하여 가장 (假裝)을 하기 때문이다. 등장인물의 명칭은 각 장면의 주제를 암시하고 있다. 특히 (가)에서 인물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로 지칭하는 것은 작품의 주제 면에서 개인의 문제가 아닌 (㉡)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무대 배경이 바뀌지 않는 민속극의 특성상 극중 장소는 대사나 몸짓, 소도구 등을 통해 나타낸다. (나)에서 ㉢ 장면의 전환이 대사나 동작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9-11월 실전모의고사 3와 2번
7-8월 문양분석집 고전문학편
(부록 문양 비교 자료 확인)

사이에 생겨나서, 사람으로 하여금 표현히 세상을 버리고 홀로 서게 하는 뜻이 있게 한다. 이리므로 농암 이현보 선생이 좋아 하기를 게을리하지 않았으며, 퇴계 이황 선생도 끊임없이 감탄 하며 완상하였다.

그러나 음향이 서로 상응치 못하고 언어가 심히 완비되지 않았다. 대개 옛것을 채집함에 장애를 받음으로 하여 웅츠러지는 부족함을 면할 수가 없다. 내가 그 뜻을 부연하여 우리말을 사용 하여 「어부사시사」 각 1편 10장을 지었다.

- 윤선도, 「어부사시사 발문」 -

<작성방법>

- (가)의 ㉠과 대립적 관계에 있는 세계를 나타내는 표현을 (가)에서 찾아 쓰고, 그것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를 서술할 것.
- (다)의 ㉡을 (나)의 작가가 공감적, 비판적으로 수용하여 자신의 작품을 창작했다고 할 때, (다)를 참고하여 (나)에 나타난 공감적, 비판적 수용 양상을 (나)의 구절을 활용하여 각각 서술할 것.

9-11월 실전모의고사 7와 9번
9-11월 실전모의고사 9와 11번
7-8월 문양분석집 고전문학편
(부록 문양 비교 자료 확인)

5. 다음은 「누항사」의 일부이다. <보기>를 참고하여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4점]

어리고 우환(迂闊)호산 이 니 우히 더니 업다
 길흉복(吉凶禍福)을 하날기 부쳐 두고
 누항(陋巷) 킷폰 곳의 초막(草幕)을 지어 두고
 풍조우석(風朝雨夕)에 석은 덥히 섭히 되야
 서홉 밥 닷홉 죽(粥)에 연기(煙氣)도 하도 할샤
 설 데인 숙냉(熟冷)에 빈 비 척일 켜이로다
 생애(生涯) 이러하다 장부(丈夫) 뜻을 올길년가
 안빈일념(安貧一念)을 적을망정 품고 이셔
 수의(隨宜)로 살려 하니 날로조차 저어(齟齬)하다
 가울히 부족(不足)거든 불이라 유여(有餘)하며
 주머니 뵈여가든 양(量)의다 닳겨시라
 빈곤(貧困)후 인생(人生)이 천차간(天地間)의 나뿐이라
 기원(飢寒)이 정신(精神)하단 일단심(一丹心)을 이질는가
 분의망신(奮義挺身)하야 죽어야 말녀 너겨
 우탁(于托)하야 수(手)가 모와 녀고
 병과오재(兵戈五載)에 감사심(敬死心)을 가져 이셔
 이시섭혈(履尸涉血)하야 몇 백전(百戰)을 지나면고
 일신(一身)이 여가 있사 일가(一家)를 도라보라
 일노장수(一奴長壽)는 노주분(奴主分)을 이져거든
 고여춘급(告余春及)을 어니 사이 심각하리
 경당문노(耕當問奴)니들 놀더려 물뜰는고
 궁경가색(躬耕稼穡)이 니 분(分)인 줄 알리로다

- 박인로, 「누항사」 -

[9-1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최 씨도 흔약 맺었다는 소식을 듣고 병이 차츰 나았다. 최 씨는 이런 시를 지었다.

惡因緣是好因緣 나쁜 인연이 좋은 인연 되어
 盟語終須到底圓 우리의 언약 이루어졌네
 共輓鹿車何日是 함께 사슴 수레 탈 날 그 언제일가
 倩人扶起理花鋤 부축 받고 일어나 꽃 비너를 꽃아 보네

드디어 좋은 날을 택하여 두 사람은 혼례를 치르고 부부가 되었다. 함께 산 뒤로 부부는 서로 사랑하고 공경하며 서로를 손님 대하듯이 온 정성을 다했다.

[중략 줄거리] 흥전적의 난이 일어나 최 씨는 죽고, 이생(李生)은 겨우 목숨을 건졌다.

이생은 발길을 돌려 최 씨의 집으로 갔다. 황량한 집에 쥐가 짹짹 거리고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만이 들려왔다. 슬픔을 가눌 수 없어 작은 정자에 올라가 눈물을 흘리며 길게 한숨을 쉬었다.

날이 저물도록 이생은 덩그러니 홀로 앉아 있었다. 멍하니 예전에 최 씨와 함께 즐겁게 보낸 시간들을 회상하노라니 한바탕 꿈을 꾸 듯싶었다.

어느덧 밤 10시 무렵이 되었다. 달빛이 희미하게 들보를 비추었다.

문득 행랑 아래쪽에서 어떤 소리가 들려왔다. 멀리서부터 발자국 소리가 점점 다가오는 것이었다. 최 씨였다. 이생은 최 씨가 이미 죽은줄 알면서도 사랑하는 마음이 간절했던 까닭에 의심하지 않고 곧바로 이렇게 물었다.

“어디로 피해서 목숨을 건졌소?”

최 씨는 이생의 손을 잡고 목 놓아 통곡하더니, 이윽고 마음을 토로하였다.

- 김시습, 「이생규장전」 -

<보 기>

16세기 말에서 17세기에 걸친 전란을 거치면서 조선 후기에는 경제적으로 몰락하거나 정치적으로 몰락한 양반층이 생겨났다. 박인로, 정훈 등과 같은 작가들도 이러한 계층에 속하는데 이들의 가사에도 변화하는 시대의 징후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들은 중앙 정계에 진출하지 못하고 소외된 지방의 한미한 사(士) 계층으로, 그 가운데 일부는 물질 기반이 미약하여 스스로 농사일에 종사해야 하는 처지로 내몰리기도 했다.

<작성방법>

- <보기>를 참고하여, 작가에게 삶의 전환을 가져온 계기가 된 사건과 이후 변화된 사회적 처지를 알려 주는 시어를 작품에서 각각 찾아 쓰고, 그 의미를 각각 서술할 것.
- 작품의 화자가 지향하는 삶과 그가 처한 현실 사이의 괴리에서 나타나는 양립적인 의식을 <보기>를 참고하여 서술할 것.

2019년 외소 전국모의고사 2번
(부록 문양 비교 자료 확인)

(나)

[전략 줄거리] 수성궁 터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들었다 깬 유영은 김 진사와 윤영을 만난다. 윤영과 김 진사는 그들의 지난 이야기를 한다.

이래 뒤에 특은 우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그 뒤로 나는 세상사에 뜻이 없어, 몸을 깨끗이 씻고 새 옷으로 갈아입은 다음 조용한 방에 누웠습니다. 나흘 동안 먹지 않다가 한 번 장탄식을 하고는 마침내 일어나서 못했습니다.

적기를 마치고 붓을 놓았다. 윤영과 김 진사는 마주 보고 슬피 울었는데, 울음을 그치지 못했다. 유영이 위로의 말을 건넸다.

“두 분이 다시 만나셨으니 소원을 이룬 셈이요, 원수 같은 종놈이 이미 죽었으니 분도 풀렸을 터인데, 어찌 그리도 하염없이 비통해 하십니까? 다시 인간 세상에 나지 못한 것을 한스러워 하시는 겁니까?”

김 진사가 눈물을 거두고 감사의 뜻을 표하며 이렇게 말했다.



“우리 두 사람 모두 원한을 품고 죽었기에 염라대왕은 우리가 죄 없이 죽은 것을 가련히 인간 세상에 다시 태어나게 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지하의 즐거움도 인간 세계 보다 덜하지 거늘 하물며 천상의 즐거움이야 말해 무엇 하겠습니까? 이 때문에 우리는 인간 세계에 태어날 소망하지 않았습니니다. 다만 오늘밤 서글퍼하는 것은 다른 이유에서 입니다. 대군이 몰락 궁궐에 주인이 없어지자 새들은 슬피 울고 사람들의 발길도 끊어졌으니, 이것만 해도 참으로 큰 일이지요. 게다가 새로 전쟁을 겪은 뒤 화려하던 집은 잿더미가 되고 고운 담장은 무너져 오직 섬들의 꽃과 뜰의 풀만 우거져 있습니다. 봄빛은 예전 모습 그대로이거늘 사람 이처럼 바뀌었으니, 이곳에 다시 와 지난날을 추억하며 어찌 슬프지 않겠습니까!”

유영이 말했다.

“그렇다면 그대들은 모두 천상에 계신 분들인가요?”

김 진사가 말했다.

“우리 두 사람은 본래 천상의 신선으로, 오랫동안 옥황상제를 곁에서 모시고 있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상제께서 태청궁에 납시어 내게 동산의 과실을 따오라는 명을 내리셨습니다. 나는 반도와 경실과 금련자를 많이 따서 사사라이 유영에게 몇 개를 주었다가 발각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속세로 유배되어 인간 세상의 고통을 두루 겪는 벌을 받았지요. 이제 옥황상제께서 죄를 용서하셔서 다시 삼청궁에 올라 상제 곁에서 시중을 들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때때로 회오리바람 수레를 타고 내려와 속세에서 예전에 노닐던 곳을 찾아보곤 한답니다.”

… (중략) …

유영이 이어서 읊조렸다.

故宮花柳帶新春 옛 궁궐의 꽃과 버드나무는 새봄을 떠났고
千載豪華入夢頻 천 년의 호사 자주 꿈에 보이네
今夕來遊尋舊跡 오늘 밤 놀러 와 옛 자취 찾노니
不禁珠淚自沾巾 눈물이 수건 적심 금치 못하네

유영이 취하여 깜빡 잠이 들었다. 잠시 뒤 ㉠산새 울음소리에 깨어 보니, 안개가 땅에 가득 하고 새벽빛이 어둑어둑하며 사방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는데 다만 ㉡김 진사가 기록한 책 한 권이 남아 있을 뿐이었다. 유영은 서글프고 하릴없이 책을 소매에 넣고 집으로 돌아왔다. 상자 속에 간직해 두고 때때로 열어 보며 망연자실하더니 침식을 모두 폐하기에 이르렀다. 그 후 명산을 두루 유람하였는데, 그 뒤로 어찌 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 「유영전」 -

9. (나)를 읽고, 작품에 대해 이해한 바를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 하시오. [4점]

<작성방법>

- 김 진사가 현재 서글퍼하는 이유를 [A]에서 찾아 서술할 것.
- (나)의 서사 구조를 고려할 때 ㉠, ㉡의 서사적 기능을 각각 서술하고, ㉢이 유영의 심리에 미친 영향을 서술할 것.

9-11월 실전모의고사 8회 10번

9-11월 실전모의고사 6회 11번

(부록 문양 비교 자료 확인)

10. (가), (나)를 읽고 <보기>를 참고하여, <작성 방법>에 따라 애정 전기소설의 특징에 대해 서술 하시오. [4점]

<보 기>

(가)는 애정 전기소설의 서사 문법을 보여 주는 대표적인 작품 이다. (나)는 (가)에서의 특징도 나타나지만, 애정 전기소설의 서사 문법과 다른 부분이 보이는데, 복잡한 인간관계의 설정, 약인형 인물 등장, ㉠적감 모티프의 사용, 작품 분량의 확대, 현실성의 강화 등이 그것이다.

<작성방법>

- (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애정 전기소설의 특징을 2가지 쓰고, 각각의 기능에 대해 서술할 것.
- (나)에서 <보기>의 ㉡에 해당하는 부분을 찾아 첫 어절과 끝 어절을 쓰고, 그 기능을 서술할 것.

9-11월 실전모의고사 1회 2번

9-11월 실전모의고사 9회 4번

7-8월 문양분석집 고전문학편

(부록 문양 비교 자료 확인)

6. 연대문학 PART 적중도



2. <보기>는 다음에 대한 비평의 일부이다. 괄호 안의 ㉠, ㉡에 해당하는 단어를 다음에서 찾아 순서대로 쓰시오. [2점]

시속 오십 몇 킬로라는 특급 차창 밖에는, 다리침을 할 만한 정거장도 역시 흘러갈 뿐이었다. 산, 들, 강, 작은 동리, 전선주, 꽤 길게 평행한 신작로의 행인과 소와 말. 그렇게 빨리 흘러가는 풍수로는, 우리가 지나친, 공간과 시간 저편 뒤에 가로막힌 어떤 장벽이 있다면, 그것들은, 캔버스 위의 한 터치 또 한 터치의 오일같이 거기 부딪혀서 농후한 한 폭 그림이 될 것이나 아닐까? 고나는 그러한 망상의 그림을 눈앞에 그리며 흘러갔다. 간혹 맞은편 플랫폼에, 부풀 듯이 사람을 가득 실은 열차가 서 있기도 하였다.

그러나 무시하고 걸쭉걸쭉 지나치고 마는 **이 장 위의 그것들**, 비질 자국 새로운 플랫폼이나 정연히 빛나는 궤도나 다 **흐트러진 폐허** 같고, **관공 브레이크**되고 남은 관성과 새 정력으로 피스톤이 들먹거리는 차체도 **폐물**이고, **그러한 차창이** 빈틈없이 나붙은 얼굴까지도 어중이떠중이 뭉친 조난자같이 보이는 것이다. 그 역시 내가 지나친 공간 시간 저편 뒤에 가로막힌 캔버스 위에 한 터치로 붙어 버릴 것같이 생각되었다.

이런 생각은 무슨 대단하거나 신기로운 관찰은 물론 아니요, 멀리 또는 오래 고향을 떠나는 길도 아니라 슬픈 착각이랄 것도 없는 것이다. 그렇다고 내가 영전이 되었거나, 무슨 사업열에 들떴거나 어떤 희망에 팽창하여 호기와 우월감으로 모든 것을 연민시켜려 드는 것도 아니다. 정말 그도 저도 될 턱이 없는 내 위인이요 처지의 생각이라 창연하다기에는 너무 실 없고, 그렇다고 그리 유쾌하달 것도 없는 이런 망상을 무엇이라 명목 지을 수 없어, 혹시, 스피드가 간절히 주는 스릴이라는 것인가고 생각하면 그럴듯도 한 것이다.

- 최명익, 「심문」 -

<보기>

속도는 모더니티의 핵심이다. 이 변화의 속도는 익숙하던 것을 불시에 먼 과거의 것으로 만든다. 최명익은 이러한 속도의 작용에 따른 당대의 정황을 인상적으로 드러낸다. 가령 「심문」에서 (㉠)은/는 돌이킬 수 없는 속도의 객관적 상관물로 설정된다. 일말의 주저나 두려움 없이 질주하는 속도는 눈앞에 닥쳐오는 모든 것을 저편으로 흘러가게 하여 낯은 것으로 만든다.

그런데 이러한 변화의 속도에 편승한 사람들조차 상대적 속도에 뒤쳐진 채 (㉡)와/과 같은 처지에 내몰린다면 어떻게 될까? 작가는 이러한 의문 속에 새로운 문명의 질주가 종내 파국에 이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드러낼 채비를 한다.

신의 안수 연대산문교육편 71-72페이지

신의 안수 연대산문교육편 90-93페이지

(부록 문양 비교 자료 확인)

5. (가), (나)를 읽고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4점]

(가)

“그놈 또 왔다. 뭘 하고 있냐? 느이 오래빌 숨겨야지, 어서.”

“엄마, 제발 이러시지 좀 마세요. 오빠가 어디 있다고 숨겨요?”

“그럼 느이 오래빌 벌써 잡아갔나.”

“엄마 제발.”

어머니의 손이 사방을 더듬었다. 그러다가 봉대 감긴 자기의 다리에 손이 닿자 날카롭게 속삭였다.

“가염은 내 새끼 여기 있었구나. 꼼짝 마라. 다 내가 당할 테니.”

어머니의 떨리는 손이 다리를 감싸는 시늉을 했다. 그때부터 어머니의 다리는 어머니의 아들이었다. 어머니는 온몸으로 그 다리를 엄호하면서 어머니의 적을 노려보았다. 어머니의 적은 저승의 사자가 아니었다.

“군관 동무, 군관 선생님, 우리 집엔 여자들만 산다니까요.”

어머니의 눈의 푸른 기가 애처롭게 흔들리면서 입가에 비굴한 웃음이 감돌았다. 나는 어머니가 환각으로 보고 있는 게 무엇이라는걸 알아차렸다. 가염은 어머니, 차라리 저승의 사자를 보시는 게 나았을 것을…….

어머니는 그 다리를 어디다 숨기려는지 물부림쳤다. 그러나 어머니의 다리는 요지부동이었다.

“군관 나오리, 우리 집엔 여자들만 산다니까요. 찾아보실 것도 없단니까요. 군관 나오리.”

그러나 절체절명의 위기가 어머니에게 육박해 오고 있음을 난들 어찌랴. 공포와 아직도 한 가닥 기대를 건 비굴이 어머니의 얼굴을 뒤죽박죽으로 일그러뜨리고 이마에선 구슬 같은 땀이 송글송글 솟아오르고 다리를 감싼 손과 양상한 어깨는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었다.

가염은 어머니, 하늘도 무심하시지, 차라리 죽게 하소서, ㉠그 몫을 일을 두 번 겪게 하시다니…….

“어머니, 어머니, 이러시지 말고 제발 정신 차리세요.”

나는 어머니의 어깨를 흔들면서 울부짖었다. 어머니는 어디까지 그런 힘이 솟는지 나를 검부리처럼 가볍게 털어 내면서 **죽을 하게 물부림**쳤다.

“안 된다. 안 돼. 이 노움. 안 돼. 너도 사람이냐? 이 노움. 이 노움.”

… (중략) …

다시 포성이 가까워지고 그들의 눈에 **핏발이** 자기 시작했다.

어머니는 앉으나 서나 그들이 곱게 물러가기만을 촉구했다.

“그저 내 자식 해코지만 마소서. 불쌍한 내 자식 해코지만 마소서.”

마침내 보위 군관이 작별하러 왔다. 그의 작별 방법은 특이했다.

“내가 동무들같이 간사한 무리들한테 끝까지 속을 것 같소.

지금이라도 바른대로 대시오. 이래도 바른 소리를 못 하겠소?”

그가 허리에 찬 권총을 빼 오빠에게 겨누며 말했다.

“안 된다. 안 돼. 이 노움 너도 사람이냐? 이 노움.”

어머니가 외마디 소리를 지르며 그의 팔에 매달렸다. 오빠는 으, 으, 으, 으, 짐승 같은 소리로 신음하는 게 고작이었다. 그가 어머니를 확 뿌리쳤다. “이래도 이래도 바른말을 안 할 테냐? 이래도.”

총성이 울렸다. 다리였다. 오빠는 으, 으, 으, 으, 같은 소리밖에 못 냈다.

“좋다. 이래도 바른말을 안 할 테냐? 이래도.”

또 총성이 울렸다. 같은 말과 총성이 서너 번이나 되풀이됐다.

잔혹하게도 그 당장 목숨이 끊어지지 않게 하체만 겨냥하고 쏘 냈다.

오빠는 유혈이 낭자한 가운데 기절해 꼬꾸라지고 어머니도 그가 뿌리쳐 나뒹그라진 자리에서 처절한 외마디 소리만 지르다가 까무러쳤다.

“죽기 전에 바른말 할 기회를 주기 위해 당장 죽이진 않겠다.”

그 후 군관은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 며칠 만에 세상은 또 바뀌었다.

오빠의 총상은 다 치명상이 아니었는데도 며칠 만에 운명했다.

출혈이 심한 데다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 박완서, 「엄마의 말뚝 2」 -

(나)

트라우마(Trauma)는 충격적인 경험의 기억이 무의식 층위에 잠재되어 있다가 특정한 계기에 ㉠부적응 행위를 촉발하는 기제 이다. 이는 악몽이나 환각 또는 강박적인 상태에서, 정신적 외상에 관련된 경험을 지속적으로 재생시켜 극심한 고통을 유발한다.

<작성 방법>

○ (가)에서 '나'가 ㉡처럼 생각할 수 있는 이유를 (나)의 관점에서 서술할 것.

○ (나)의 ㉡에 해당하는 행위를 (가)에서 2가지 찾아 서술하고, 그 공통된 의미를 (나)를 참고하여 서술할 것.

9-11월 실전모의고사 8회 11번

(부록 문양 비교 자료 확인)

12. (가), (나)를 읽고 <보기>를 참고하여 시의 심상에 대해 이해한 바를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4점]

(가)

(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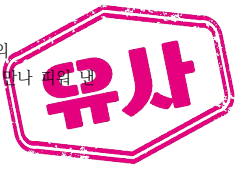
아무도 그에게 수심(水深)을 일러준 일이 없기에
흰 나비는 도무지 바다가 무섭지 않다

청(靑)무우밭인가 해서 내려갔다가는
어린 날개가 물결에 젖어서
공주처럼 지쳐서 돌아온다

삼월달 바다가 꽃이 피지 않아서 서글픈
나비 허리에 새파란 초생달이 시리다

- 김기림, 「바다와 나비」 -

(나)
새벽 시내버스는
차창에 웬 찬란한 치장을 하고 달린다
염동 혹은 일수룩
선연히 피는 성에꽃
어제 이 버스를 탔던
처녀 총각 아이 어른
미용사 외판원 파출부 실업자의
입김과 숨결이 간밤에 은밀히 만나 피었다
번뜩이는 기막힌 아름다움
나는 무슨 전람회에 온 듯
자리를 옮겨 다니며 보고
다시 꽃 이파리 하나, 섬세하고도
차가운 아름다움에 취한다
어느 누구의 막대한 한숨이던가
어떤 더운 가슴이 토해 낸 정열의 숨결이던가
일없이 정성스레 입김으로 손가락으로
성에꽃 한 잎 지우고
이마를 대고 본다
덜컹거리는 창에 어리는 푸석한 얼굴
오랫동안 함께 길을 걸었으나
지금은 면회마저 금지된 친구여.



- 최두석, 「성에꽃」 -

<보 기>

심상은 언어를 통해 주어진 감각 정보가 마음속에 그려 놓은 형상들이다. 시의 심상은 단순히 어휘 하나에 따라오는 효과가 아니다. 의미 있는 심상은 시행과 시 전체의 효과로만 들어진다. 심상은 일차적으로 시각, 촉각, 청각, 미각, 후각 등 인간의 지각 작용을 통해 형성된다. 또한 시적 표현을 통해 ㉠하나의 감각이 다른 감각으로 전이된 심상이 형성되기도 한다.

시적 심상은 비가시적인 것을 가시화하는 기능을 가진다. 대상이 눈앞에 실제로 존재하지는 않지만, 언어가 재현하는 대상에 대한 심상은 시적 상상과 결합해 새로운 의미를 불러온다. 가령, (나)의 '창에 어리는 푸석한 얼굴'은 단순히 얼굴의 상태를 묘사한 것으로 그치지 않는다. 이 얼굴은 화자의 현재 모습이기도 하며, 어제 버스에 탔던 사람들의 (㉡)와/과 (㉢)이/가 만들어 낸 흔적으로 이들의 삶을 가시화한다. 나아가 이 얼굴은 오랫동안 함께 길을 걸었으나 만나지 못하는 친구의 얼굴까지도 떠올리게 한다.

<작성방법>

- <보기>의 ㉠의 예를 (가)에서 찾아 쓰고, 그 심상이 가시화 하는 의미를 서술할 것.
- <보기>의 ㉡, ㉢에 들어갈 말을 (나)에서 찾고, 이를 활용하여 '성에꽃'의 의미를 서술할 것.

9-11월 실전모의고사 10의 4번

9-11월 실전모의고사 10의 7번

7-8월 문양분석집 연대서편

(부록 문양 비교 자료 확인)

6. (나)는 '시의 시상 전개 양상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라는 학습 목표에 따른 수업 중 학생과 교사 간 대화의 일부이다. (가), (나)를 읽고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4점]

(가)
비는 서로 어우러져
기대고 산다.
햇살 따라와질수록
깊이 익어 스스로를 아끼고
이웃들에게 저를 맡긴다.

서로가 서로의 몸을 묶어

교사 A : 요즘, 소설의 시점에 대해 수업하는데 현대 소설에서는 기존의 시점 유형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교사 B : 「소나기」만 하더라도 학생들이 어떤 부분을 가리키며 시점이 어떻게 되느냐고 물으면, 시점의 유형을 감안 해서 대답해 주기는 하는데 석연찮은 구석이 있어요.

교사 A : 특히 인물의 대화를 직접 인용한 대목이 아닌데도 인물의 감정이나 생각을 인물이 직접 전해 주는 것처럼 드러난 부분이 눈에 띄어요.

교사 B : 맞아요. 가령 (나)에서 (㉠) 같은 부분은 인물의 생각을 드러낸 방식이 독백에 가까워서 작은따옴표를 붙여도 좋을 것 같아요. 서술자의 목소리보다 인물의 목소리가 강하게 드러난다고 하겠지요. 이런 경우라면 시점의 유형을 일관되게 적용하기 어려워요.

교사 A : 그도 그럴 것이, 시점에 관한 개념으로 따지자면 (나)의 경우, 서술자가 사건에 대해서는 물론 인물의 심리에 대해 서도 (㉡)적인 입장에서 이야기를 제시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듯 이야기를 전하여 서사의 제시 양상을 조율하고 있는 점이 엿보여요. (나)에서 「중략」 이후를 보면, 인물 간의 대화를 통해서 '소녀'에 얽힌 사연이 밝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인물의 목소리를 통해 서이지만 마치 서술자가 개입하여 사건의 경과를 요약 해서 제시하는 듯한 인상이 드는 것이 예상롭지 않아요.

교사 B : 서술자의 지위나 위치가 크게 바뀐 것은 아니지만 서술의 양상이 일정하지 않게 된 것이지요. 이를 서술 상황의 불확정성으로 설명하는 견해가 있더군요.

(나)

어른들의 말이, 내일 소녀네가 양평읍으로 이사 간다는 것이 었다. 거기 가서는 조그마한 가갯방을 보게 되리라는 것이었다.

소년은 저도 모르게 주머니 속 후두알을 만지작거리며, 한 손으로는 수없이 갈꽃을 휘어 쥐고 있었다.

그날 밤, 소년은 자리에 누워서도 같은 생각뿐이었다. 내일 소녀네가 이사하는 걸 가 보나 어쩌나, 가면 소녀를 보게 될까 어떨까.

... (중략) ...

남쪽 끝에서 바느질감을 안고 있던 어머니가,

"증손이라곤 기집에 그 애 하나뿐이었지요?"

"그렇지. 사내에 둘 있던 건 어려서 잃구"

"어쩌면 그렇게 자식 복이 없을까."

"글쎄 말이지. 이번 앤 꽤 여러 날 앓는 걸 약도 변변히 못 써봤다드군. 지금 갈에서는 윤 초시네두 대가 끊긴 셈이지. 그런데 참 이번 기집에는 어린것이 여간 잔망스럽지가 않아. 글쎄 죽기 전에 이런 말을 했는지 않아? 자기가 죽거든 자기 입던 옷을 꼭 그대로 입혀서 묻어 달라구"

- 황순원, 「소나기」 -

9-11월 실전모의고사 4의 11번

9-11월 실전모의고사 10의 8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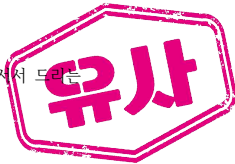
(부록 문양 비교 자료 확인)



더 튼튼해진 백성들을 보아라.
최도 없이 최지어서 더욱 불타는
마음들을 보아라. 벼가 춤출 때,
벼는 소리 없이 떠나간다.

벼는 가을 하늘에도
서러운 눈 씻어 맑게 다스릴 줄 알고
바람 한 점에도
제 몸의 노여움을 덮는다.
저의 가슴도 더운 줄을 안다.

벼가 떠나가며 바치는
이 넓디넓은 사랑,
쓰러지고 쓰러지고 다시 일어서서 드리는
이 파묻은 그리움,
이 넉넉한 힘……



- 이성부, 「벼」 -

(나)

학생 : 선생님, 시는 시상의 전개 양상이 시의 의미와 연관이 된다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둘의 긴밀한 관계를 뜻하는 것 같기는 한데, 시에서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교사 : 「벼」를 예로 들어 볼까요? 모두 4연으로 구성된 시인데, 1연의 「저를 맡긴다」, 2연의 「소리 없이 떠나간다」, 3연의 「노여움을 덮는다」 등에서 각 연의 시상이 나타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2연에는 ㉠형식상 변화가 보이는 부분이 있어요. 이런 식의 변화를 통해 시상 전개의 단조로움을 줄이는 효과를 준다고 할 수 있겠지요. 그러면서도 셋째 연까지 제시된 「벼」에 관련된 시상이 4연에 모이는 점을 볼 수 있어요. 1~3연의 시상은 4연의 (㉡), (㉢), (㉣)(이)라는 단어에 연결되면서, 「벼」의 속성과 관련 하여 성찰한 삶의 태도를 시사한다고 할 수 있어요.

<작성방법>

- (나)의 ㉡에 해당하는 예를 2가지 찾아, 형식상 변화를 서술할 것.
- (나)의 ㉢~㉣에 들어갈 말을 (가)에서 찾아 쓰고, 「벼」의 속성과 관련하여 성찰한 삶의 태도에 대해 서술할 것.

9~11월 실전모의고사 1회 10번

9~11월 실전모의고사 1회 9번

3~4월 연대시 분석반 시어, 심상자료

(부록 문항 비교 자료 확인)